



■ 연구원 주요일정

- 09월 18일(月) : 주간회의
- 09월 19일(火) : 호남고전문화학연구원과 MOU체결, 효천지구 대표자 연구원 방문

■ 연구원 소식

○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 진행

지난 학술대회와 공동사업인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가 **9월 16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답사는 국가보훈처가 후원하였고,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학생들 40여명과, 광복회 전북지부의 회원 8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시민들과 역사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상시 모집 중>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디아스포라 강좌 안내”

- 주 제 : 러시아 소수민족과 동아시아의 공동체 - 고려인을 중심으로
- 강 사 : 홍웅호(동국대 교수)
- 장 소 : 전주대학교 진리관 307호
- 시 간 : 2017년 9월 21일(목) 16시~18시

: 디아스포라 강좌는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생은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오셔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맹호연의 자는 역시 호연(浩然)으로, 지금의 호북성(湖北省)에 해당하는 양주(襄州)의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맹양양(孟襄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양양의 남쪽에 장원이 있어 그의 가족이 이곳에 살았다. 그에게는 세연(洗然)이란 형에다가 형(馨)과 악(諤)이란 두 동생이 있었다.

■ 작 품

夜歸鹿門山歌(야귀녹문산가)	밤에 녹문산으로 돌아가는 노래
山寺鐘鳴晝已昏(산사종명주이혼)	산사의 종소리 날은 벌써 저물었는데
漁梁渡頭爭渡喧(어량도두쟁도훤)	어량의 나루에 다투어 건너는 시끄러운 소리
人隨沙路向江村(인수사로향강촌)	사람은 강가의 모래밭 따라 마을을 향해 가고
余亦乘舟歸鹿門(여역승주귀록문)	나 또한 배에 올라 녹문산으로 돌아감에
鹿門月照開煙樹(녹문월조개연수)	녹문산에 달빛 비쳐 숲속 안개 걷힐 무렵
忽到龐公棲隱處(홀도방공서은처)	홀연히 다다른 방덕고의 옛 처소
巖扉松徑長寂寥(암비송경장적료)	언제나 적료한 바위 문과 솔밭 길에
惟有幽人自來去(유유유인자래거)	오로지 은자들만 왔다가 갈 뿐이라

■ 감 상

앞서 소개한 「세모귀남산」이란 작품도 사실 이때에 지어졌다. 어쩌다가 흥미로운 일화 속에 개입되어, 727년 무렵에 지어졌다고 와전된 것이다. 전언한대로, 녹문산은 은자 방덕공이 먼저 숨어살던 곳이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이곳에 깃들이게 된 맹호연이다. 어느 날 땅거미가 내릴 무렵 맹호연은 「야귀록문산가(夜歸鹿門山歌)」를 지었다.

- 코린토스, 미케네를 품고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



고대도시 코린토스(이하 고린도)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아테네에서 80km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아테네 이전 그리스 수도였던 나프플리온(Nafplion)을 비롯하여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 황금도시 미케네, 올림픽 발상지 올림피아 그리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의료원이었던 에피다브로스 등이 있어서 이곳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그리스 고대문명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인들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고대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가려면 아테네 키피소우(Kifissou)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곳으로 가다보면 1시간 조금 후 그 입구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세계 3대 운하로 유명한 코린토스 운하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운하는 기원전부터 로마가 개통하려고 하였다. 왜냐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속국인 아테네를 가려면 이오니아 해(海)를 지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운하를 건설하면 거리가 많이 단축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유로 율리우스 시저, 칼리굴라 등 로마의 황제들이 운하를 공사를 시도 한 바 있다. 또한 기원후에는 네로도 수천 명의 노예를 데리고 와서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완공하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19세기 말에 와서야 폭 23m, 길이 6km의 규모로 운하가 완공되었다. 비록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운하이지만 이는 현대에 이르러 해상 무역에 큰 의미를 지닌다. 왜냐면 6km의 운하를 뚫지 않으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한 바퀴 돌아 350km이상을 돌아가야 하므로 운항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매우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옛날, 기원전부터 로마가 그리도 운하를 건설 하려고 애썼던 모양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한반도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뉴스를 통해 보도를 접할 때마다 결혼 후 첫 어버이날, 대구 시댁에 갔다가 시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성주가 떠오른다.

‘별의 고향’ 성주는 6가야연합국의 하나인 성산가야의 고장으로 가야지역 답사를 돌 때 성산 동고분군(사적 제86호)에 잠시 들렀지만, 일정상 다른 곳은 돌아보지 못했다. 특히나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제444호)을 돌아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마침 시부모님이 함께 해주셨다.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전경>

세종대왕은 본인도 걸물이지만, 그 소생 왕자들도 하나같이 걸출했다. 그 소생 왕자들의 태가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이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 부속물인 태(胎)를 태항아리에 갈무리하여 길한 장소에 모시고 안장했다. 아기의 장수와 나라 번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길일을 택하여 태를 내항아리에 담고 다시 외항아리에 넣어 태어난 아기의 출생과 매장 시기를 기록한 지석을 함께 묻고 태비(胎碑)를 세웠다. 보통 들판에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둥근 야산을 선택해 안장했는데, 이러한 태봉은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다.



<인종 태내항아리, 국립고궁박물관>



<인종 태외항아리, 국립고궁박물관>

성주에 있는 세종대왕자 태실은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세종의 적서(嫡庶) 18왕자와 세손 단종의 태실 등 19기가 모여 있다. 전체 19기 중에서 14기는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조의 왕위찬탈 과정에 반대한 다섯 왕자의 태실은 연꽃잎 모양의 대석을 제외한 석물이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태비도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반면, 후일 왕으로 즉위한 세조 태실의 경우 가봉비(加封碑)가 하나 더 놓여져 있다.



<파괴된 안평대군 이용의 태실>



<가봉된 세조(수양대군 이유)의 태실>

몇 년 전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손주 부부와 함께 이곳에 와 건강한 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다. 그 이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건강한 아이에 대한 염원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듯 하다. 요즘은 제대혈 때문에 태를 병원에 보관하기도 한단데, 이것도 아마 같은 마음에서일 것이다.

내년 상반기 전시 주제로 아마도 왕실의 출산을 다룰 듯 하다. 얼른 성주가 안정되어 다시 자료 조사차 이곳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돌아오는 길에 성주 참외도 한박스 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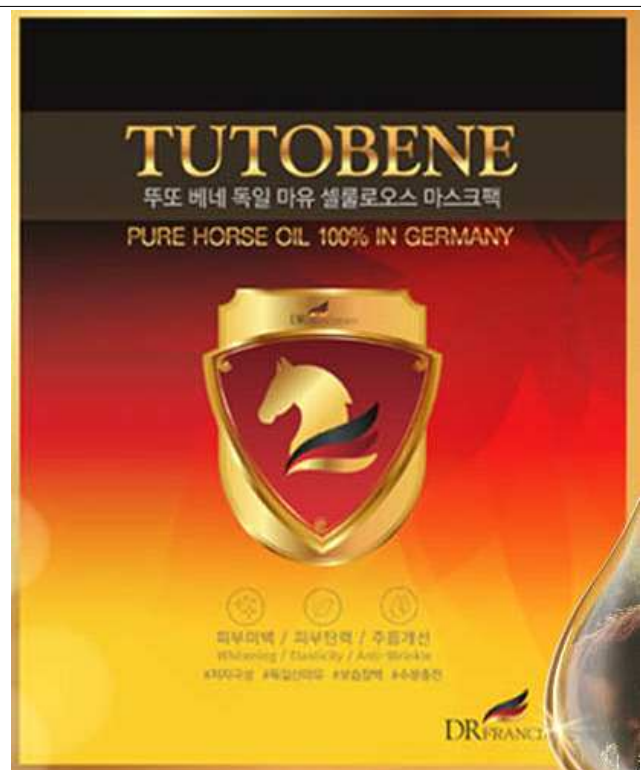
◎ 효 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30g * 5매 >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